

“5·18 ‘방관說’은 잘못... 불교계는 적극 동참자였다”



5·18 민중항쟁 영령을 위한 광주전통불교영산대제가 18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5·18재단 보고서 발간...종전 주장 뒤집어

원불교 광주교당·원각사 등 시민군 피신 돕고 식사 제공 승려들 조직적 시위 참여·전국 신도 대상 모금운동 대동고 불일학생회 성명 발표하고 대학생 시위 동참

1957년부터 매일 도심 한복판에서 묵직하게 울려 퍼지는 원불교 광주교당 범종 소리는 듣는 이에게 편안함을 준다. 범종소리가 멈춰버린 건 딱 한번. 1980년 5월18일 새벽, 계엄군이 금남로 일대를 장악하고 시민들에게 총을 겨누고 있을 때였다. 이선조(여·64) 교무는 너무도 겁이 나 교당 앞마당에 있는 범종까지 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 때 시민들에게 “종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안정을 찾는데 왜 종을 안 치느냐”고 전화가 왔다. 죽을 결심을 한

이 교무는 ‘총탄을 막기 위해’ 두터운 숨으로 된 좌선복을 둘러쓰고 항쟁 기간 내내 종을 쳤다. ‘불교계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천주교·기독교에 비해 소극적 역할만 했다’는 기존의 시각을 뒤집는 연구자료가 나왔다. 5·18기념재단은 최근 ‘불교계 5·18민주화운동 구술기록 조사 및 수집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이하 연구서)를 발간했다. 연구서에는 당시 5·18을 목격하고 직접 민

주화운동에 뛰어든 불교계 인사(불교 9명·원불교 6명)들의 구술기록이 담겨 있다.

금남로와 가까웠던 원불교 광주교당, 불교사찰 원각사 등은 시위대에 적극 합류하거나 시민군에 식사를 제공하고 피신을 시켜줬다. 특히 항쟁을 이끌었던 박관현 전남대 총학생회장의 어머니가 원불교 교도였고, 시민군 행동대장이었던 한상석(전남대 학원자율화추진위원장) 열사도 학생교도였다.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전남대 원불교학생회장이었다.

또, 1980년 5월21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광주에 모여있던 많은 승려들이 시위대에 조직적으로 참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화합사에 있었던 진각스님의 경우 일손을 돕기 위해 14일 증심사에 왔고 5·18 현장을 목격했다. 19일 새벽 시장을 보기 위

해 총장로 목욕탕을 찾았던 그는 시위대에 합류했고 공수부대에 연행돼 수난을 당했다.

대동고 학생들이 주축이었던 원각사 불일학생회 10여명은 18일 연등을 만들기 위해 절에 갔다가 현장을 목격한다. 19일 학생 40여명은 학교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학생 시위에 동참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24일 광주를 방문했다. 참상을 목격한 스님은 30일 광주시민 돕기대책본부를 설치해 전국 신도를 대상으로 의견 모금운동을 했다. 이후 5·18은 1980~90년대 불교 운동에 큰 영향을 끼친다.

조성식 책임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불교계가 5·18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홍희기자 kimhy@kwangju.co.kr

정부, 제작업체 비행 장소 확보 지원 비행·촬영 신청 12월 온라인 일원화

탄력받는 전남 드론 산업

정부가 드론 등 신산업 관련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필요한 규제만 최소 적용키로 하면서 전남의 미래성장 산업인 드론산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신산업 규제완화 대책에 대해 관련부처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회는 이전과 달리 산업별 실행계획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도교통부는 우선 자율주행차의 경우 기업 등 개발자가 원하는 전국 어디서나 시범운행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8개주에서만 허용하고 있는 미국이나 고속도로만 허용하고 있는 독일에 비해서도 완화된 조치다.

또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드론을 활용한 신규사업을 전면 허용하고 드론을 활용한 물품소송도 가능하도록 했다. 역시 드론활용사업에 대해 불허원칙을 세우고 임시허가 방식으로 운영하는 미국보다 완화된 조치다.

특히 드론 등 주목받는 신산업 관련 규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소명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농약 살포·항공 촬영 등에 국한돼 있던 드론 사업 범위가 전면적으로 확대돼 드론 택배, 드론 광고판 등 드론을 다양한 사업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드론 비행 여건 개선을 위해 드론 제작업체가 많은 수도권 내 전용 비행 구역을 현재 18곳에서 22곳으로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대전 등 비행 금지구역에서도 제작업체 인근에 비행 장소를 확보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비행승인, 항공촬영 허가 등 각종 신청은 올 12월 온라인으로 일원화되며 내년 7월부터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비행 가능 지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드론산업은 전남의 미래성장 산업으로, 고흥은 전국 최초로 농약살포용 드론 실증 보급사업에 나선 데 이어 최근에는 강화인 국도교통부장관이 직접 참관하는 드론(무인 비행장치) 시범사업 시연회도 열었다.

군은 이달 말 기획재정부에서 사업규도를 확정하고, 다음달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제정되면 2017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드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사물인터넷 주파수 출력규제를 10mW에서 200mW로 완화, 세계 최초의 IoT 전국망을 구축하게 됐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등 ICT 융합 신산업 규제도 국제적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동물을 대상으로 시험한 자료를 우선 허가하고, 바이오의약품 개발 지원 전담팀 등을 구성해 바이오 헬스케어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강진(康津)-강진(强震:강한 지진)
곡성(谷城)-곡성(哭聲:울음소리)
진도(珍島)-진도(震度:지진 강도)

“지역 이미지 해칠라” 지자체 적극 방어

언론 등에 사용자제 요청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지역간 무한 경쟁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이 부정적 의미를 담은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로 지역명이 훼손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남도 답사 1번지’ 강진(康津)군과 ‘보배의 섬’ 진도군은 대규모 인명피해 등을 유발하는 지진(地震) 발생시 강진(強震), 진도(震度) 등의 용어가 언론에 보도돼 지역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사용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깊은 골짜기와 높은 산고개’란 뜻을 지닌 곡성(谷城)군은 최근 ‘울음(곡) 소리’라는 뜻을 담은 연쇄살인 사건 영화 ‘곡성(哭聲)’의 개봉을 앞두고 군수까지 직접 나서 영화와 얽힌 지역명에 대한 오해를 풀어내라고 군부두했다.

강진군은 18일 광주일보 등 주요 신문·방송사에 협조공문을 보내 “최근 일본 구마모토와 남미 에라도르 등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는 지진 뉴스보도 과정에서 ‘강한 지진’을 ‘강진(強震)’이란 용어로 사용해 지역 이미지에 악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앞으로 지진 관련 보도시 강진이란 용어 대신 ‘강한 지진’ 사용하도록 권의 드린다”고 호소했다.

강진군은 “최근 내년을 ‘강진 방문의 해로 선포’하는 등 모든 군민이 한 마음 한뜻으로 관광 활성화와 정경농수산물 판매 등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치명적인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군민의 우려가 크다”면서 “실제 외국인들이 강진을 여행하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지진 피해 소식 등이 담긴 우울한 기사들이 검색되는 등 지역 관광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도군은 2000년대 들어 각 언론사에 지역 이미지 관리를 위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인체에 느껴지는 진동의 세기를 표현하는 ‘진도’라는 단어를 ‘지진 강도’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최근 시골마을에서 연쇄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긴 영화 ‘곡성’의 개봉을 앞두고 재차 대응으로 ‘악재’를 과정에서 ‘강한 지진’을 ‘강진(強震)’이란 용어로 사용해 지역 이미지에 악

/강진=남철희기자 choul@

광주시, 청소년문화제 연계 인권놀이터 운영

21일 금남로 일원

광주시는 광주인권헌장 선포 4주년을 맞아 21일 금남로 일원에서 청소년문화제 ‘2016 레드페스타 축제’와 연계한 광주 인권놀이터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인권도시 광주의 미래 청사진이자, 실천규범인 광주인권헌장은 지난 2012년 5월21일 제47회 시민의날에 시민대표 21명에 의해 선포됐다. 인권헌장은 광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공동체의 주인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인권도시 광주의 미래를 담고 있는 철학적 기반이다. 인권놀이터는 시민오리무미기와 인권 체험부스로 운영된다. 시민오리무미기는 사전 모집한 18개 팀이 광주인권헌장 소재로 시민오리를 꾸민 후 전시된다. 인권 체험부스에서는 ‘입을 위한 행진곡’ 등 광주정신을 주제로 한 노래댄스 워크숍, 1980년 5월에서 온 편지 답장쓰기 부스 등 7곳이 운영된다. /최권일기자 cki@

광신대학교 대학원 2016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안내

전형일정

- ① 원서 접수 : 2016. 5. 30(월) ~ 6. 8(수)
- ② 전형일 : 2016. 6. 10(금)
- ③ 합격자 발표 : 2016. 6. 14(화) ④ 등록기간 : 2016. 6. 14(화) ~ 15(수)

* 참고사항
- 서류심사 관례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필기시험 해당학과 : 신학과(Th.M.), 신학과(M.Div.) - 실기시험 : 실용음악학과(M.A.)

모집학과 및 인원

대학원	학위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유아교육학과(M.Ed.)	○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

61022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사로 36 입학문의 ▶ 0621 605-1115, 1024, 1021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희소식 유한바이오 클리코엔 (N) 골드

-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 1 식후 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3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문의 H.P 010-3598-7080/1899-3975

말하는 법 1%만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어 성적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직장인 스피치**

면접 준비에 이만저만이 아닌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본원에서는 기업체·금융사·임용고시·경합직 등등 취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준비 실천과정을 통하여 취업을 맞춤 지원합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